

민족운명의 수호자 김정은원수 만만세!

10여일이 흘렀다. 행성우에 초강대국으로 우뚝 솟아올라 눈부신 빛발로 만민의 심장을 뽐내 한 격동적인 그날로부터. 사상초유의 특대사변인 4월의 열병식열과는 시간이 흐를수록은 행성을 더욱 뜨겁게 달구고 날이 갈수록 8천만겨레의 가슴가슴을 크나큰 격정으로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동포들 그 누구나 《민족의 태양 김정은 장군》, 《천하제일의 위대한 장군》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4월의 대사변으로 펼쳐진 민족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애국의 가슴을 들먹이고있다. 어찌 그렇지 않랴. 바로 우리의 눈앞에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영광의 시대가 광휘롭게 펼쳐지지 않았던가. 열병식이 진행된 잊지 못할 4월 25일의 그날 공화국의 존엄과 온 나라 인민의 승리와 영광, 주체혁명부력의 상징인 원수복을 입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신 존안에서 우리 겨레는 민족의 위대한란한 미래를 보았다.

반방에 펼쳐진 민족의 강용한 힘과 위상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 성대한 열병식이였다. 누구나 저도 모르게 두손을 모아 위고 경탄과 환호를 터치지 않을 수 없었던 멋지고 화려한 철의 흐름, 주체조선의 절대적힘과 무비의 군사적강세를 과시한 열병식. 놀라움과 황홀함, 신비함의 극치를 이룬 가장 매혹적인 열병식이였다. 강대한 공화국의 존엄과 사상초유의 조선의 힘을 한가슴에 안아보는 려사의 그 순간 겨레모두의 가슴마다에 끓어넘겼은 무엇이었던가. 과연 언제 어느 시대에 우리 민족의 존엄과 영광이 오늘처럼 이렇듯 위대하게, 이렇듯 하늘높이 솟구쳐오른적 있었는가 하는 크나큰 자긍심이였다. 탁월한 수령의 위대함은 민족의 오늘과 래일을 밝혀준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기초엽 자기 지킬 힘이 없어 려강들의 각축전마당으로 되었던 조선이였다. 대모와 함선을 끌고온 섬나라오랑캐들에게 변변히 맞서보지도 못하고 나라를 빼앗겨 40여년간이나 삼가집 개만도 못한 노예살이를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조선민족이였다. 수난담던 그 나날 얼마나 많은 이 나라 청장년들이 죽음의 전쟁관과 공사장들에 내몰리워 무주고혼의 신세가 되었고 얼마나 많은 조선녀성들이 치욕스러운 일본군성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던가. 어찌 이뿐이라. 조상대대로 물



려받은 우리의 말과 글, 지어 삼가지 빼앗기고 반만년의 오랜 려사를 자랑하는 민족의 수많은 문화재부들마저 파괴, 약탈 당해야만 했던 기구한 조선민족이였다. 이러한 우리 겨레의 운명에서 전환이 일어난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주체혁의 첫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항일대전을 선포하신 그날부터였다. 항일무장투쟁을 승리로 이끄시여 조국해방의 려사적위업을 성취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에 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신 공화국의 무력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에 의해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더욱더 장성발전하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였다. 오늘 우리 민족은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김정은장군을 모시어 반만년민족사에 초강대국의 새시대를 맞이하였다. 4월의 심야열병식은 바로 우리 민족의 힘과 지위에서 얼마나 엄청난 전환이 일어났는가를 누구나 가슴뭉클하게 느끼게 해준 사변적인 열병식이였다.

김일성광장을 누빈 열병중대들의 장엄한 흐름은 가용할 군사력, 압도적인 공격력을 가진 세계적인 강군으로 자라난 공화국무력의 강대함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우리의 선조들이 오늘처럼 세계 반방에 펼쳐지는 조선의 크나큰 힘을 과연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는가. 어제날 대포를 끌고온 친략자들에게 화승총으로밖에 맞지 못했던 조선의 손에 지금은 세계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최강의 무기까지 쥐여져있다. 조선은 이렇게 세계의 중심에 우뚝 솟아올랐다. 민족의 존엄과 지위는 최고의 높이에 이르게 되었다.

만민이 우리르는 천하제일령장

4월의 열병평장연단에 높이 오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뵈으며 우리 겨레가 절감한것은 무엇이었던가. 그는 천하제일의 장군이다. 천군만마를 거느린 장군도 많았고 전쟁의 승리를 안아온 령장도 있었다. 하지만 려사와 세계를 통털어 그이와 같은 장군중의 장군,

김정은시대의 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본다. 《초대국》이라 자처하는 제국주의 미국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명실상부한 초강대국을 선망의 눈길로 바라본다. 강대한 조선의 출현으로 세계의 정치군사지형도가 달라지게 되었다. 조선을 당할자 이 행성이 없다. 진정 거대한 폭발력으로 세인을 경탄시킨 눈부신 심야열병식은 회세의 천출명장 김정은장군이 계시어 조국과 민족의 오늘도 영광스럽지만 래일도 영원히 무궁번영할것이라는 확신을 깊이깊이 새겨주며 우리 민족사에 길이길이 빛날것이다.

공세를 증안에 휘어잡은 지략과 정신력, 군사적강세의 노드였다. 《3.18혁명》, 《7.4혁명》, 7.28의 기적적승리, 《11월대사변》, 극초음속미사일발사, 지상대지상증강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검수사격시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시험발사... 지난 10년간은 총포성이 울리지 않은 조선과 미국을 위시로 하는 적대세력들과의 치열한 대전이었다. 조선은 사상최약의 협공세력들만 해도 영연히 무궁번영한 시련과 역경들을 헤쳐야 했다. 그러나 그 10년러정의 결을 결음에서 적대세력들의 기를 꺾고 승리의 통장훈을 부르며 오늘 더욱 강대한 조선으로 세계의 상상봉에 우뚝 올려세워주신 김정은장군이다. 공화국의 군력, 국력을 세계의 전례에 내세우시고 위대하고 불멸할 영광의 단상에 오르신 백전백승의 천출명장 김정은원수님의 모습에서 공화국인민, 아니 온 인류가 보았다. 8.15의 조국해방을 안아온 민족의 은인, 7.27의 기적적신화의 전승을 빛내이신 전설적영웅 위대한 김일성장군을.

선군정치의 보검으로 제국주의 광풍을 몰아내고 강국번영의 대문을 열어주신 김정일장군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 그이네 조선의 힘이고 강대성의 상징이시다. 일찌기 《고정불변》한것처럼 되어오던 조선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문제를 지정학적지위문제로 천명하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자주, 자존, 자강의 힘으로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우시였다. 지난 10년간 인류는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였다. 어느분의 의지에 의해 이 행성의 축이 흔들리고 세계정치흐름이 좌우되고있는가를. 굴종과 의존, 간섭과 지배의 악순환은 더욱 강해진 조선의 자주와 자존, 자력자강의 힘에 의해 처절한 파멸로 이어지고있다. 너무도 담차고 강대한 출현이 고 폭발이어서 조선의 《교사》를 우려하던 세계의 랑심이 자기의 눈을 의심했다. 세인의 초점이 모아진 조선인민혁명군장군 90돛경축 열병식연단에서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선언

하시였다. -힘과 힘이 치렬하게 격돌하는 현 세계에서 국가의 존엄과 국권 그리고 믿을수 있는 진정한 평화는 그 어떤 적도 압승하는 강력한 자위력에 의하여 담보된다.- 한 나라, 한민족의 운명만이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나가는 절세위인의 말씀은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인류에게는 희망과 신심을 안겨준 빛이었고 열풍이었으며 타민족과 나라들에 대한 지배와 예속을 《특허》로 여기던자들에게는 전멸의 벼락이였다. 위대한 령수를 모실 때 작은 나라도 강국으로 존엄떨칠수 있다는 철리가 경애하는 그의 원수복에 금벌로 빛났다. 원수복을 입으신 백승의 장군, 회세의 위인을 모신 열병식의 그날에 북과 남의 우리 민족은 눈부신 태양의 존안을 우리였다. 태양과 같이 만민을 품어안는 사랑과 정, 강대한 힘과 천변만화의 지략, 탁월한 령도로 자주와 번영의 밝은 앞날을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공화국의 자위적역력의 기본사명, 억척같이 결어는 자위적이며 현대적인 무력건설의 길로 더 빨리, 더 즐기차게 나가시려는 강인담대한 배짱, 후손만대의 장래에 대한 담보를 위해 계속 강해져야 한다는 역척의 의지가 그의 담대한 선언으로 4월의 우주에 메아리쳤다. 그것은 사랑이다. 공화국인민만이 아닌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과 안녕, 번영을 위한 숭고한 사랑이고 정의에 위대한 헌신이다. 그의 심중에는 언제나 하나의 조선, 하나의 겨레가 짝 들어차 있으며 사랑하는 인민, 사랑하는 민족이 세계 그 어느 민족도 당해본적 없는 분렬의 비극과 고통을 장강 수십년동안 강요당하고있는 통렬한 아픔을 하루빨리 가셔야 한다는 념원과 사랑감이 떠난적 없었다. 4월의 행성을 광광 울린 자위적역력의 절대적강세도 우리 겨레에 대한 절세위인의 숭고한 정과 열의 결정체인것이다. 정녕 경애하는 김정은장군은 만고절세의 애국자, 겨레의 은인, 민족의 위대한 령수이시다. 민족의 구심점, 태양을 따르는 것은 막을수 없는 겨레의 추향이다. 머지않아 세계인류는 위대한 령수를 모시어 젊음으로 활기차고 비약하는 천하제일강국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것이다. 겨레여, 한없는 자긍으로 똘똘이 뭉치는 심장을 터쳐 세상에 목청껏 자랑하자 민족의 위대한 령수를 모신 무상의 영광을. 민족운명의 수호자 김정은원수 만만세! 본사기자 유금주, 김정혁

